

## 2014년 고성장 ICT기업 현황 및 특징

이승민, 조근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tzme@iitp.kr](mailto:itzme@iitp.kr), [pink@iitp.kr](mailto:pink@iitp.kr)

## A status and features on the high-growth ICT companies in 2014

Seung Min Lee, Keun Hee Cho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amp;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요약

본 논문은 2016년 1월 한국신용평가 정보의 상장, 외감기업CB를 토대로 2014년 기준 ICT 고성장 기업의 현황 및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ICT 생태계의 역동성을 진단하고자한다. 2014년 국내 ICT 고성장기업은 370개로서 전체 ICT 외감, 상장기업 기준 18.6%를 점유하였고 국내의 경기 침체 등으로 고성장 기업 수는 전년대비 18.3% 감소하였다. 글로벌 ICT 여건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내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시장 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고성장 중소기업에게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ICT 경기 하락, 내수 침체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고성장 중소기업이 내수 중심적 매출 구조로 인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상장 및 외감기업 DB[1]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을 기록한 ICT기업을 고성장 ICT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현황 및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ICT생태계의 역동성을 진단하고, 국내 고성장 기업 확대를 위한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론

2014년 국내 ICT고성장기업은 전체 ICT 외감, 상장기업 1,991개 중 18.6%에 해당하는 370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3년 고성장기업 수인 453개에 대비하여 18.3%로 감소하였다.

2014년 고성장기업 수의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ICT 매출은 미국, 중국 등 G2를 중심으로 재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고성장 중소기업에게 어려운 여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lt;그림 1&gt; ICT 고성장 기업군의 국제 비교



가. ICT기업 매출비교(G2 vs 非G2) 나. 주요국가 ICT매출 연평균 성장률

자료: S&P Capital 2015.12/글로벌 ICT 13,658개 기업 대상

주(국가별 상위 업체): 중국(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레노버,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미국(애플, 구글, MS 등), 일본(NTT도코모, 히타치, 소프트뱅크, 소니 등), 대만(혼아이그룹(폭스콘), 페가트론, TSMC 등)

특히, 세계 ICT기업의 매출은 연평균('12~'14년) 1.9% 감소한 가운데, G2

국가 기업 매출은 3.1% 성장, G2 국가의 매출 비중은 '12년 41.6%에서 '14년 45.9%로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매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 5위(0.4조\$)를 기록, G2를 제외하고 소폭이지만 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기록 하였고, 우리나라의 '14년 ICT 고성장 기업 수는 중국, 미국, 대만에 이은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lt;표 1&gt; 세계 고성장 ICT기업 국가별 점유율(%)

국가명	중국(홍콩)	미국	대만	한국	캐나다	영국	인도
점유율(%)	26.1	22.2	8.6	7.4	4.3	3.9	3.5

자료: IITP, S&P Capital 2015.12/글로벌 ICT 13,658개 기업 대상

대내적으로는 국내 ICT 경기 하락, 기업의 ICT변화 대처 지연, 매출 100억원 달성 중소기업의 성장성 정체, 소위 성장통으로 주로 고성장기업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 세월호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애플, 샤오미 등 세계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국내 기업의 경기는 하락하였다. 2014년 고성장 탈락기업은 총 260개이며 이중 중소기업 195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중 177개는 내수 중심(매출 중 수출 비중이 5% 미만)기업이었고, 특히 166개 업체가 '13년 매출 100억원 달성 이후 성장 정체가 발생하였다.

&lt;표 2&gt; 2014년 고성장 ICT기업 구성(개, %)

구분	고성장 유지	고성장 탈락	고성장 편입
기업수(비중, %)	193(52)	260(70)	177(48)

자료: IITP, 한국신용평가정보, 상장외감기업DB 2016.1

ICT기업의 고성장기업군 비중은 비ICT기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ICT기업의 고성장기업 비중은 서두에 언급한 바와같이 18.6%이며, 이는 동기간 비ICT기업이 14.7%인데 비해 3.9%p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성장 ICT기업 중 SW 및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HW 의존형 산업구조가 고성장기업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lt;표 3&gt; 고성장 ICT기업의 SW 및 서비스 업종 비중 (%)

구분	2011	2012	2013	2014
SW, 서비스비중	37.5	40.9	38.0	41.4

자료: IITP, 한국신용평가정보, 상장외감기업DB 2016.1

고성장 ICT 기업은 10년 미만의 젊은 기업이 대거 포진하였다. 전체 ICT 기업의 평균업력이 15년인데 반해 고성장기업은 12.5년이며, 10년 미만의 기업이 163개로 고성장 기업 중 44.1%를 차지하였다.

또한, 고성장기업의 42.7%인 158개 업체가 정부의 R&D 및 비R&D 지원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되며, 2012년 36.1%에서 2014년 42.7%으로 정부 지원 수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성장기업은 수출을 통해 매출 향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등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 확대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lt;표 4&gt; 고성장 ICT기업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2011	2012	2013	2014
수출/매출 비중	24.0	18.7	23.1	36.8

자료: IITP, 한국신용평가정보, 상장외감기업DB 2016.1

### III. 결론

2014년 고성장 ICT기업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세월호 사태, 미국, 중국 중심의 글로벌 ICT시장 재편 현상 등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ICT기업 수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대만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선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4년 고성장기업에서 탈락한 기업 대부분은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내수중심의 기업으로 파악된 반면, 수출 시도 등 내수 침체를 타개 노력이 결실을 거둔 기업은 고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성장통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R&D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빅데이터, 핀테크, IoT 등 ICT 융합 신산업을 통한 국내 ICT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 ACKNOWLEDGMENT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T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2016.1.
- [2] S&P Capital 2015.12 (글로벌 ICT 13,658개 기업 대상)